

완도군,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 총회 성공 개최' 해양치유 세계 무대에 알리며 군 위상 드높여

# '지속 가능한 해조류 블루카본' 선언문, 만장일치로 채택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완도군에서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힐링 총회와 힐링 타임(Healing General Assembly, Healing Time)'이라는 주제로 「2025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 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제슬로시티연맹은 전통과 자연을 보존하며 '느림의 삶'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목표로 33개국이 가입돼 있고, 총회는 각국의 슬로시티 우수 사례 공유 및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다.

올해 총회에는 미국, 이탈리아, 폴란드, 프랑스 등 13개국의 슬로시티 도시 시장 및 대표단이 참가했다.

19일에는 각국 참가자들이 완도에 도착하며 본격적인 일정에 앞서 완도를 둘러보다 환경과 문화를 접하는 시간을 가졌다.

20일에는 완도의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참가자들은 해양치유와 기후·숲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이어 '완도호랑가시나무'를 활용한 퍼포먼스를 통해 화합의 메시지를 공유하고, 국제슬로시티 운동의 창시자인 파울로 사투르니니의 헌정 비빔 샐러드 퍼포먼스, 밴드 공연, 완도 특산물이 전복과 치킨이 어우러진 '복답복답 파티'는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1일에는 완도군 생활문화센터에서 총회 공식 일정이 진행됐으며, 신우철 완도군수, 허공희 완도군의회 의원, 마우로 밀리오리니 국제슬로시티연맹 회장, 야생코스트카 수석 부회장, 손대현 부회장 등이 인사말을 전했다.

총회에서는 신규 슬로시티·협력 기관 인증 후 '한국 슬로시티 소프트 파워 개발 창조', '슬로시티를 위한 인공지능', '시간 은행과 15분 도시', '삶의 질과 자전거'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또한 슬로시티의 네트워크 공유 및 관광, 음식, 농업, 도시, 모빌리티, 교육, 기후 등 분야별로 논의하며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완도군과 국제연맹에서는



'CITTASLOW FOR SEA, 지속 가능한 해조류 블루카본' 선언문을 발표했으며, 회원국의 투표에 따라 만장일치로 선언문이 채택됐다.

완도의 해양치유 정책과 슬로시티 가치가 담긴 선언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해양 활동의 지속 가능성, 해조류 기반 경제, 친환경 에너지, 건강한 먹거리 등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

오후에는 완도전통시장과 완도타워, 청해진 유적지 등을 둘러보는 시티 투어, 저녁에는 갈라 디너가 진행돼 참가국 간

우정을 다졌다.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청산도 구들장은 떡메치기, 투호 던지기, 널뛰기, 윷놀이, 사자춤, 사물놀이 등 한국의 전통 놀이 등 한국과 완도의 문화를 체험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총회는 완도가 보유한 해양치유와 문화·수산 등 다양한 자원을 세계에 알리는 데 있어 소중한 기회였다"면서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 슬로시티 완도의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 HD현대삼호 협력사 임직원에게 영암 농특산물 선물로 지역상생 실천

영암군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이 다시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되는 지역순환경제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그 대표적 성과로 HD현대삼호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5월, 영암군과 HD현대삼호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협력 관계를 공식화했다. 이후 HD현대삼호에서는 지난 5월 26일에 협력사 임직원 9,391명을 대상으로 영암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가정의달 선물로 제공하며 실질적인 지역 상생을 실천했다.

지난 4월22일 HD현대삼호와 동반 성장부와 영암군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매년 해온 협력사 직원 가정의달 선물을 영암 농산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협력사 직원들의 요청에 따른 품목과 단가에 맞추어 상품을 준비하여 5월 25일 최종적으로 주문을 완료하였다.

선물은 총 4억7천만원 상당의 구

모로, ▲무항생 영암 한돈세트 ▲친환경 재배 영암쌀 ▲한우 등심·육포 세트 ▲장어구이 세트 ▲대봉 반건시 껏감 등 영암 지역의 우수 농산물로 구성됐다. 품목 하나하나에 지역 농가의 정성이 담겨 있어, 근로자에게는 우수한 지역의 농특산물을, 지역 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을 전했다.

이번 농산물 구매는 HD현대삼호가 협력사 복지를 위해 운용 중인 'HSHI 기금'을 통해 이뤄졌다. 이 기금은 협력사 임직원에게 장학금, 학자금, 명절 및 가정의달 선물 등을 제공하는 복지 재원으로 활용되며, 2022년부터는 영암군도 기금 출원에 참여하여 지역과 기업이 함께 만드는 복지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

영암군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가정의달 영암 농산물 구입은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매우 뜻깊으며, 앞으로도 HD현대삼호와의 협력을 통해 기업이 발전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영암/김희선 기자

## 순천시, 2025년 탄소중립 실천 행정 우수 시·군 최우수 수상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19일 여수시 디오션 호텔 앤 리조트에서 열린 탄소중립 이행 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탄소중립 실천 행정 우수 시·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라남도가 주관하였으며,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비전 실현과 정부합동평가 지표 달성을 목표로 도내

각 시군의 탄소중립 실천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 항목은 탄소중립 실천운동,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탄소중립포인트제, 친환경차 보급 등 총 6개 지표로 구성됐으며, 탄소중립 우수사례에 대한 심사도 병행됐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펼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서의 노력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특히 워크숍에서는 시에서 추진한 '탄소중립 기후변화대응 SNS 이벤트' 우수 사례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

의 이행을 위한 우리 시의 의지와 노력을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달성을 목표로, 대자보 생태교통 전환, 신재생에너지 보급, 도시숲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정성인 기자

장흥군은 23일 갯벌 낙지 자원 증진과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득량만 연안에 어미 낙지 3900마리를 방류했다.

장흥군의 대표 수산물인 낙지 자원 회복을 위해 진행된 이번 방류는 낙지 급이기(6월 21일 ~ 7월 20일)를 맞아 실시되었다.

방류된 낙지는 육상에서 암수 합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교미를 마치고 포란된

장흥군, 득량만에 어미 낙지 3900마리 방류

## 갯벌 낙지 자원 확보, 주민 소득 증대 기대

건강한 어미 낙지 약 3,900마리다.

장흥군은 이번 방류를 통해 낙지 자원 개체수 증가와 어업인 소득증대는 물론 '장흥낙지' 브랜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의 자랑인 청정갯벌에서 생산되는 낙지는 맛과 품질 모두 최고를 자랑한다"며, "이번 어미 낙지 방류를 통해 '장흥낙지' 브랜드를 더욱 굳건히 하고, 감성품 방류등 지속적인 자원 관리

를 통해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청정해역 갯벌 생태산업특구'로 지정된 장흥군 득량만은 전국 최초로 무산김에 대한 ASC(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국제양식관리협회) 인증을 획득하는 등 지속 가능한 해양 환경 보존과 고품질 수산물 생산에 힘쓰고 있다. /장흥군 제공

전남 구례군은 지난 23일 구례 5일시장에서 제80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80년 함께한 구강건강, 100세 시대의 동반자'라는 주제로 군민들에게 구강건강 관리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강보건의 날은 영구치인 어금니가 나오는 나이인 6세의 '6'자와 어금니를 뜻하는 구치(臼齒)의 '구'를 숫자로 바꾸어

## 구례군, 구강보건의 날 기념 캠페인 실시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지정해 왔으며, 2015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날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관리 방법을 알려주고, 구강상담, 불소도

포 서비스 및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홍보하는 등 지역 주민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행사를 진행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에게는 정기적인

구강검진 및 규칙적인 칫솔질 실천을 독려하기 위하여 구강 위생용품을 배부하였다.

백영훈 보건사업과장은 "이번 구강보건의 날 캠페인을 통해 군민들이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에서도 구강 관리 습관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무안군, '찾아가는 외국인등록 서비스'로 농가 불편 해소

## 계절노동자 547명 중 84%인 460명 등록 완료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계절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외국인등록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외국인인 입국 후 90일 이내에 법무부 출입국을 직접 방문해 외국인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관할기관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표출장소는 7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고, 상반기에 입국한 계절노동자의 등록은 6월과 7월에 집중돼 민원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당일에 등록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무안군은 목표출장소와 협력해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농번기로 바쁜 지역 농가와 외국인 계

절노동자의 불편을 덜었다.

현장 민원서비스는 지난 5월 29일과 6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무안읍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됐으며, 상반기 입국 계절노동자 547명 중 84%인 460명이 등록을 마쳤다.

특히, 군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현장 접수 지원에 나서는 등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김산 군수는 두 차례 모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처음 시도한 현장 외국인등록 서비스인 만큼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를 보완해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안군 제공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색감처럼**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타성에 젖지 않을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힘들수록 나 자신을 사랑할 것. 늘 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헛살 같은 **알려고 싶은 것.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려고 있다는 것**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코자 볼 수 있는 것이니까**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나의 우주와**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소중함을**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이까 **자칫 무의미해 보이는 꿈같은 것. 저서**

**기억스레 생각** **정말 멋진 나를 있는 건데** **알이다.**

평범함의 **더 크게 웃을 것** **포근한 이불**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일상을** **우어도 보는 것.**

마음이 편해진다 **누가 뭐라고 해도 말야** **한드** **기려할 것.**

**및 장이나 될까.** **잠시** **이루고**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평범한 것은 **평범한 것은**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비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득한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알고**

엔다 **잘될 테니까** **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그**

언제나 **우연**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